

李濟馬 哲學의 學問의 背景과 四象 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宋 一 炳*

緒 論

李濟馬는 醫源論에서 “내가 醫藥經驗이 5-6千年 지난 以後에 태어나서 前人之述로 因하여 우연히 四象人臟腑性理를 얻어 책을 지은 것이 東醫壽世保元이라”고 하였다.

或者는 前人之述을 醫書로 解釋하거나 內經을 指稱한 것으로 解釋하는 분이 있다. 그러나 辨證論에서 말하기를 “靈樞經中에 太少陰陽五行人論이 있기는 하나 이는 大略 外形만을 말하였을 뿐이고 臟腑의 理致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여 四象人의 臟腑性理가 內經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著者는 四象醫學의 李濟馬의 最初의 創案이라고 본다면 醫書에 局限시키는 것 보다는 四象哲學의 基低를 이루는 모든 書籍을 指稱한다고 보아야 옳다고 생각한다.

李濟馬는 廣濟說에서 “妬賢嫉能 天下之大病也 好賢樂善 天下之大樂也”라 하여 好善과 惡惡은 李濟馬哲學에서 重要한 人格修養의 窮極的 目的이 되고 四象醫學에서는 疾病治療의 方法이 되는 것으로 이는 哲學과 醫學이 함께 만난 廣濟說의 總 結論이 되고 있다. 여기서

好善과 惡惡은 性善의 表裏가 되는 것으로 孟子의 性善哲學의 背景”에서 나왔고 好善과 惡惡은 好人(愛人)과 惡人의 表現으로 이는 孔子의 仁”의 哲學의 背景에서 나온 것으로 李濟馬哲學은 儒學의 바탕에서 出發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李濟馬는 好人과 惡人을 잘하자면 正心不動心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고, 不動心이 되자면 知人을 잘해야 하고 知人을 잘하면 正己가 잘 이루어져서 獨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知인과 正己는 李濟馬가 평생 追求해온 哲學의 課題로서 知人의 方法을 研究한 것이 獨行篇이고 正己의 方法을 提示한 것이 反誠箴이라 할 수 있다.

著者는 李濟馬의 著書속에 나타난 哲學의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대하여 格致藥의 內容을 通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本 論

李濟馬의 生涯와 著作年代를 살펴보면 李濟馬는 1836年(丙寅) 3月19일에 誕生하시고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1900(庚子)년에 돌아가셨는데 一生을 통해서 그는 格致彙 東醫壽世保元 濟衆新編의 3卷의 冊을 지었다.

45세부터 57세까지 一生의 壯老年期를 통해서 格致彙를 著述하여 그의 哲學的 기틀을 完成하였고 59세에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여 이제까지 그가 完成한 哲學的 바탕에서 새로운 四象醫學을 創案하였고 62세에 濟衆新編을 지어 그의 哲學的 바탕에 入脚해서 살아가는 生活의 智慧를 提示하고 있다.

格致彙는 儒略 獨行篇 反談箴으로 構成되었으며 이중에서 儒略은 最初로 45세 되는해(庚辰)에 시작해서 事物篇에서 四戒篇까지 5篇을 쓰고 10年後인 55세 되는해(庚寅)에 7篇을 補完하여 12篇의 儒略을 完成한다.

中間 47세 되는해(任午)에 獨行篇을 完成하고 57세 되는해(癸巳)에 反談箴을 지어 格致彙를 完成한다.

東醫壽世保元은 59세 되는해(甲午)에 지어졌으며 濟衆新編은 62세 되는해(丁酉)에 完成되는데 五福論 勸壽論 知行論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編輯上 格致彙의 끝부분에 濟衆新編을 함께 收錄하고 있는 것이다.

1. 儒略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哲學

朱子는 性理學의 哲學的 바탕을 中庸의 첫 句節인 “天命之謂性”⁴⁾의 解釋에서 “性則理也”⁵⁾라 하였고 “性則心之理 情則心之用”說明과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⁶⁾說明에서 性情을 體用 理氣關係로 해석하여 主理論的 說明을 하고 있다. 그러나 李濟馬는 四象哲學의 基本精神을 中庸의 둘째 句節인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⁷⁾의 해석에서 天地位焉(宇宙의 構成要素)과 萬物育焉(事物의 生成變化要素)

을 동시에 說明할 수 있는 “事心身物”로 要約하여 이를 四象哲學의 基本單位로 삼고 있다. 이 事心身物의 要略精神을 바탕으로 하여 四書三經에 담겨있는 儒學精神과 事物의 現象을 要約하여 說明하는 것이 李濟馬의 儒略精神이다.

즉 中庸에서 “物”을 설명하기 위해서 至誠無息하면 … 載物 覆物 成物이 되고 이것은 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이 된다⁸⁾고 하였고 “其爲物不貳”라 하였는데 李濟馬는 成物을 “知物” “行物”로 해석하여 天地知行으로 나누고 宇宙의 構成要素를 性命論에서 “天機有四 一曰天時 二曰世會 三曰人倫 四曰地方”⁹⁾으로 具體化 하였다.

事物의 變化的 要素를 說明하기 위하여 大學의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¹⁰⁾에서 知를 心身으로 擴大해석하여 事物心身으로 나누고 이를 儒略 事物篇에서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¹¹⁾라 說明하였고 事心身物에는 決覺行止¹²⁾와 變靜動化¹³⁾의 變化的 要素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이라 說明하고 “其爲物不貳”를 해석하였다. 즉 形而上學 現象은 “事心”으로 形而下學 現象은 “身物”의 聚象의 說明方法으로 說明이 가능하고 모든 “物”은 겉으로 形과 象이 나타나고 속으로는 性과 則이 있게 되어 “其爲物不貳”가 된다고 보았다.

宇宙의 構成要素인 “天, 地, 知, 行”이나 社會的 現象인 “一天之同胞(事) 萬物之群居(物) 四方之會通(心) 百工之和利(身)”이나 人體의 生理的 現象인 “耳目口鼻(事, 性) 肺脾肝腎(物, 命) 領臆臍腹(心, 知) 頭肩腰腎(身, 行)”도 모두 事心身物의 요약정신으로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이 事心身物의 物象이 단독으로 獨立해서 存在할 수는 없고 반드시 太極의 心과

兩儀인 心身の 內面的 發展過程을 거쳐 四象인 事心身物の 形象¹⁶⁾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여 萬物の 生成 및 發展原理를 말하고 있다.

또한, 反誠箴에서 “八卦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前後”로 나누어 八卦를 事心身物の 兩面性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李濟馬는 事心身物の 各各 四端을 設定하고 (4×4=16) 이를 性四端과 慾四端으로 나누어 함께 모으면 32個의 心¹⁵⁾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事心身物の 兩面性을 加算하면 64개의 心이 되는데 이를 64卦에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周易의 說明方法에 이를 附合시키고 있다.

이로써, 李濟馬의 儒略精神속에는 事心身物的 說明方法이 朱子の 主理論的 說明方法과 周易의 主氣論的 解析을 떠나서 儒學現象이나 宇宙現象을 同時に 수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方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李濟馬의 四象은 周易에서 나온 太少陰陽이 아니고 事心身物임을 알 수 있다. 事心身物的 說明方法은 四象哲學에서 뿐만 아니고 四象醫學 基礎理論의 說明에서도 根幹을 이루고 四象養生方法의 說明에도 根幹이 된다.

四象哲學의 時代的 背景은 李朝末葉에 나타난 實學의 影響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 固有의 儒學의 風土, 즉 高麗中葉부터 李朝末葉까지 700年間 持續된 性理學의 發達에서 自生된 改新儒學의 哲學的 理論으로 李濟馬는 그의 哲學的 背景을 原始儒學의 再說明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獨行篇과 李濟馬의 知人論

李濟馬는 好人과 惡人을 잘 하려면 知人을 잘 한 不動心의 狀態에서 可能하다고 보고 不動心이 되면 “中立而不倚”하고 “和而不流”

하여 獨行¹⁶⁾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이 모두 行身不誠 知人不明¹⁷⁾에서 나온다고 하여 知人の 重要性을 강조하였고, “知人은 帝堯之所難이요 大禹之所吁라”하여 知人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는 하나 누구나 知人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⁸⁾고 하였다. 그래서 “竭智而察人則 無不知人也”라 하였고 반드시 “而必也 誠身然後 知人也”¹⁹⁾라 하여 知人하는 方法에 관심을 두고 다른 著述보다도 먼저 獨行篇著述을 시작하였다.

사람은 惡人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仁義禮智의 恒衷이 있고 비록 好人이지만 鄙薄貪穢의 陋慾이 있다²⁰⁾고 하였고 이를 살펴 知人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한사람의 마음속에서도 君子之心과 小人之心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많은가에 따라 君子도 되고 小人이 된다²¹⁾고 하였다.

性理學에서는 四端은 道心이고 七情은 人心이라 하여 性과 情을 구분하고 있지만 李濟馬는 喜怒哀樂의 情도 四端과 함께 人性이라 부르고 心慾을 따로 設定하여 性과 慾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性인 仁義禮智와 心慾인 鄙薄貪穢를 설명하기 위하여 獨行篇에서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孟子의 頑夫之心 懦夫之心 鄙夫之心 薄夫之心²²⁾을 끌어다 心慾으로 命名하고 이들 心慾을 설명하기 위하여 孔子의 “君子小人論”과 孟子의 “蔽辭, 淫辭, 邪辭, 遁辭”²³⁾와 大學의 “忿懣之心, 恐懼之心, 好樂之心, 憂患之心”²⁴⁾을 동원하여 心慾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李濟馬의 心慾論的 知人은 喜怒哀樂의 主體가 되는 性情人을 가리킨 것에 비하여 孔子의 知人²⁵⁾은 仁의 主體가 되는 倫理的 知人(父子 君臣 兄弟 朋友)을 가리키고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는 “知人如帝堯然後好賢而元吉이요 正己如孟子然後惡惡而無咎”²⁶⁾라 하여 堯의 知人을 孔子의 知人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李濟馬 특유의 知人論을 완성하고 얼마 후 東醫壽世保元에서 體質의 心慾論²⁷⁾으로 발전되어 四象體質論이 나오게 된다.

3. 反誠箴과 李濟馬의 正己論

李濟馬는 反誠箴에서 反誠이란 “反於誠而自警也”²⁸⁾라 말하고 “詐心이 문득 유혹되어도 行詐하지 않고 反誠하면 이것이 곧 學問하는 것이니 學問之道는 다른 것이 아니고 求其放心하는 것이다.”²⁹⁾라고 하였다. 또한 四端論에서 “喜怒哀樂未發而恒戒하고 已發而自反하면 中과 節에 가깝게 된다”³⁰⁾고 하였다. 여기에서 “反於誠而自警”과 “恒戒自反”의 정신은 李濟馬 哲學에서 學問하는 정신이며 자기 스스로 正己하는 方法이 되고 있다. 이는 中庸의 “誠”³¹⁾의 정신과 孟子的 “自反”³²⁾ 정신 “反求”³³⁾ 정신 “正己”³⁴⁾ 정신 “存心養性”³⁵⁾ “求放心”³⁶⁾ 등 治心正己의 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는 “正己如孟子然後 惡惡而無咎”라 하여 孟子가 누구보다 正己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 외에 孔子의 正己精神³⁷⁾을 설명하기 위해서 “克己復禮”³⁸⁾ “隱惡而揚善”³⁹⁾ “察乎詭詐”⁴⁰⁾의 正己方法을 밝히고 中庸의 “慎其獨”⁴¹⁾과 “學問思辨”⁴²⁾의 正己方法을 함께 밝혀 이를 바탕으로 李濟馬 스스로 완성한 “心慾의 允執厥中”⁴³⁾과 “喜怒哀樂의 恒戒自反”의 正己方法을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李濟馬의 學問精神은 “誠”에 두고 있으며 孔子보다는 孟子的 “治心正己” 정신을 더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自身이 正己方法을 터득했다고 보며 이 正己方法에는 中庸의 “調和 調節” 정신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대부분 李濟馬의 哲學思想은 原始儒學의 (四書三經) 再解釋에서 나온 “知人正己”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고, 특히, 知人을 說明하는데 “不動心”을 말하였고 正己를 說明하는데 “求放心”을 말하고 있어 그의 哲學的 背景이 孟子的 “治心正己”의 정신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孟子的 治心正己의 哲學思想은 李濟馬의 治心治病精神과 治心養生精神으로 발전되고 뒤에 醫學的 正己와 生活的 正己로 실용화되었다고 본다.

4. 李濟馬의 醫學的 正己와 生活的 正己

李濟馬 哲學의 知人正己정신은 哲學的 原理에서 實用的 應用으로 발전하여 구체화하게 된다. 즉 體質的 知人論이 나왔으며 거기에 따른 體質的 正己論이 나오게 되는데 體質에 따른 醫學的 正己論은 곧 四象醫學의 成立을 意味하고 體質에 따른 生活的 正己론은 곧 四象的 養生論을 말한다.

李濟馬는 性命論에서 人間은 責心 責氣⁴⁴⁾하여 知行을 쌓아 好善惡惡을 하되 我亦知善하고 我必不行惡하는 自律的 存在⁴⁵⁾로써 說明하였고 四端論에서 人間은 天稟之已定으로 臟腑의 大小와 心慾의 偏在現象을 갖고 태어난 天賦의 不完全한 人間으로 說明하고 있으며 擴充論에서 四象人的 情氣(心性)⁴⁶⁾의 特徵을 中庸의 正中을 이탈한 偏倚過不及의 心性狀態로 說明되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李濟馬의 人間象은 先天的으로 자신의 不完全性을 認識하고 後天的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正中의 狀態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自己正己의 정신이 되고 醫學的 正己와 生活的

正己의 背景이 되는 것이다.

李濟馬는 醫學的 正己보다는 生活的 正己의 比重을 높여 疾病의 治療보다는 平소의 生活 속에서 人格의 陶冶와 豫防的 養生을 중요시하였다.

治療醫學으로써 個體醫學보다는 豫防醫學으로써 社會醫學(養生法)을 더 중요시하고 生活的 智慧으로써 또한 人格修養의 方法으로 濟衆 新編을 著述하였다.

四象哲學에서 人間의 生活을 地理的(物) 血緣的(身) 社會的(心) 歷史的(事) 要素를 바탕에 두고 人間의 行爲를 居處(家庭을 이끄는 일) 黨與(地域的이나 血緣的으로 무리를 이루는 일) 交遇(社會的 學問的交流活動) 事務(歷史的 使命으로 수행하는 모든 일)⁴¹⁾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들에 대한 四象人의 天賦的 能不及 있는데 少陽人은 事務를 잘 하지만 嬌奢한 마음때문에 奢侈스러운 방탕(侈色)에 빠져 居處를 잘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簡約의 生活方法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였다.

太陽人은 交遇는 잘하지만 懶怠한 마음때문에 酒食에 빠지기 쉬워 黨與를 못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극복하자면 勤幹의 生活態度에서 方法을 찾아야 된다고 하였다.

少陰人은 黨與는 잘하지만 偏急한 마음에서 權勢를 다투다 보면 交遇를 못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자면 평소 나보다 어질고 能力있는 사람을 警戒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權勢의 미련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太陰人은 居處를 잘하는데 貪慾때문에 財貨에 눈이 어두워 事務를 잘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자면 聞見있는 生活을 하여 財貨를 청렴하게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酒, 色, 財, 權은 우리 주위에 적당히 있을 때 우리 生活을 윤택하게 하는 필요한 要素가 되지만 이들을 慾心내어 너무 많이 소유한다면 결국 가정의 파탄은 물론이고 건강을 해치는 壽夭의 關鍵이 된다고 보았다.

세상을 生活하는데 酒, 色, 財, 權의 中庸⁴²⁾을 簡約 勤幹 警戒 聞見의 生活的 正己에서 찾고 있으며 結論的으로 好賢樂善과 妬賢嫉能⁴³⁾의 好善惡惡을 적절히 유지하는 生活이 醫學的 正己와 生活的 正己를 함께 풀어가는 方法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結 論

이제까지 李濟馬 著書 格致藥를 통하여 李濟馬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에서 몇가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李濟馬의 四象哲學은 우리나라 固有의 儒學的 風土에서 自生된(原始儒學『四書三經』의 再해석에서 나온) 改新儒學으로 모든 儒의 現象을 事心身物로 要約하여 說明하는 哲學理論이다.

2. 四象哲學의 學問的 背景은 儒學的 好善惡惡과 知人 正己에서 그 目的을 찾을 수 있었고 이는 孟子의 不動心과 求放心의 治心正己思想에서 나왔으며 四象醫學의 治心治病精神을 낳게 한 것이다.

3. 獨行篇에서 知人의 方法을 追求하다 體質의 知人論을 發見하여 四象體質論이 나오게 되었다.

4. 反誠箴에서 正己의 手段을 “隱惡而揚善(好善惡惡)”과 “察乎詭詐”에 두었고 이를 心慾(私放逸慾)의 允執厥中과 喜怒哀樂의 恒

戒自反(中庸의 調和 調節정신)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를 醫學的 正己(東醫壽世保元)와 生活的 正己(濟衆新篇)로 實用化 하였다.

5. 따라서 四象醫學은 體質的 正己를 目的으로 하는 儒學的 治心治病醫學임을 알 수 있었다.

註

- 1) 孟子道性善 言必稱 堯舜(孟子滕文公)
- 2) 子曰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論語 里仁)
- 3) 篇名 獨行 何義耶 曰好而知其惡則 中立而不倚 惡而知其美則 和而不流 如此者 自然獨行 獨元者 不動心(獨行篇)
- 4)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中庸)
- 5) 性則理也 在心喚做性 在事喚做理(朱子語類)
- 6) 性與情皆從心 性則心之理 情則心之用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朱子大全)
- 7)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天下之大本也 和也者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中庸)
- 8) 故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所以載物 高明所以覆物 悠久所以成物也 博厚配地 高明配天 悠久無疆 如此者 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中庸)
- 9) 天地之道可一言而盡也 其爲物不貳則其生物不測(中庸)
- 10)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則近道矣(大學)
- 11)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格致彙儒略)
- 12)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儒略事物)
- 13) 一決一覺一動一止一舒一卷一進一退. 變靜動化者 謂之四象(朝醫學 金九壘)
- 14)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物心身之心 四象之心也(反誠箴)
- 15) 肅艾哲謀(事之用) - 聽視言貌(事四端) - 奮心 侈心 懶心 詐心. 明慎審博(心之用) - 學問思辨(心四端) - 私心 放心 逸心 慾心. 動能懸誠(身之用) - 伸收放屈(身四端) - 奪心 侈心 懶心 竊心 利勇謀知(物之用) - 意慮臆志(物四端) - 驕心 衿心 伐心 夸心(朝醫學 金九壘)
- 16) 篇名獨行何義耶 曰好而知其惡則 中立不倚 惡而知其美則和而不流 如此者 自然獨行 獨行者不動心(獨行篇)
- 17)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四端論)
- 18) 知人帝堯之所難而大禹之所吁也 盖人不可不知而最難之謂也(獨行篇)
- 19) 端智而察人則 無不知人也 而必也 誠身然後知人(獨行篇)
- 20) 雖惡人也 有仁義禮智之恒衷 雖好人也 貪鄙儒薄之陋慾(獨行篇)
- 21) 以一人之心而有君子之心焉 有小人之心焉. 君子之心易知 小人之心難知 易知之心多而難知之心 小者名曰君子(獨行篇)
- 22) 故聞白夷之 風者頑夫廉 懦夫有立志. 故聞柳下惠之風者 鄙夫寬 薄夫敦(白夷章)
- 23) 何謂知言 曰諛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浩然章)
- 24) 所謂修身在正其心者 身(心)有所忿懣則 不得其正 有所恐懼則不得其正 有所好樂則不得其正 有所憂患則不得其正(大學章句)
- 25) 故君子不可以不修身 思修身不可以不事親. 思事親不可以不知人 思知人不可以不知天(中庸)

- 26) 知人如帝堯然後 好賢而元吉 正己如孟子然後 惡惡而無咎(獨行篇)
- 27) 人趨心慾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名曰貪人(四端論)。
太陽之人 放縱之心必過也。少陰之人 偷逸之心必過也。少陽之人偏私之心必過也。
太陰之人 物慾之心必過也(擴充論)
- 28) 篇名反誠 何謂耶。東武自幼至老 千思萬思 詐心無窮 行詐則 簡簡狼狽 愆困愆屈不得已 反於誠而自警也(反誠箴)
- 29) 詐心而行詐則詐也 詐心便發未及行詐而 反誠則學問也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反誠箴)
- 30)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四端論)
- 31) 誠者天之道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逸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聖人也。 誠之者擇善而固執之者也。(中庸)
- 32) 仁者愛人有禮者敬人 愛人者人恒愛之。 敬人者人恒敬之 有人於此其待我以橫逆則 君子必自反也(離婁章)
- 33) 愛人不親反其仁 治人不治反其智 禮人不答反其敬 行有不得者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離婁章)
- 34) 有大人者 正己而物正者也(盡心章上)
- 35) 存其心養其性 所以事天也(孟子盡心)
- 36)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告子章)
- 37) 正己而不求於人則無怨 上不怨天 下不尤人(中庸)
- 38) 凡人心中 惑酒惑色惑貨惑權 必有膠着之欲 故行詐也。就其中膠着之甚者克之則 其他泛泛之欲 不克而自克 此謂之克己復禮也(反誠箴)
- 39)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用其中於民 其斯以為舜乎(中庸)
- 40) 是故 格物致都在於察乎詭詐 而怨天尤人 必在於不察詭詐反道敗德 必在於不察詭詐也(反誠箴)
- 41)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 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中庸)
- 42)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獨行之(中庸)
- 43) 若夫身之左右橫放 心之上下出沒 即 私放逸慾之所致也 非擇乎中庸 允執厥中之上下左右也(巽箴)
- 44) 心體之濟濁 氣宇之強弱(性命論)
- 45) 我之頷臆臍腹 我自為心而未免愚也 我之免愚在我也(性命論)
- 46) 太陽之情氣 恒欲為雄 少陰之情氣 恒欲為雌 少陽之情氣 恒欲外勝 太陰之情氣 恒欲內守(擴充論)
- 47)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日時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性命論)
- 48) 簡約得壽 勤幹得壽 警戒得壽 聞見得壽 色得中道 酒得明德 權得正術 貨得全功(廣濟設)
- 49) 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廣濟論)

參 考 文 獻

1. 成均館大學校, 經書「大學, 論語, 孟子, 中庸」, 大東文化研究院, 서울, 1965.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서울, 1964.

3. 李濟馬, 格致藁, 太陽社, 서울, 1985.
4.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壽文社, 서울, 1973.
5. 武內義雄(李東熙譯), 中國思想史, 驪江出版社, 서울, 1987.
6. 裴宗鎬, 韓國儒學史, 延世大學校出版部, 서울, 1984.
7. 韓錫池, 明善錄, 民族文化社, 1986.
8. 金九翌, 四象醫學臨海指南(朝醫學), 延辨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 연변, 1985.